

CEO 동정

# 철도부지 행복주택사업 추진 업무협약식



공단은 지난 21일 국유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# 철도 레일체결장치 텐션클램프 이상 없어

- 경부고속철 등 4개 노선 58만개 점검, 균열·파손 제품 없어 -

기술본부(본부장 최강윤)는 지난 4월 15일 발생한 '신분당선' 텐션클램프 파손과 관련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방식의 제품이 설치된 경부고속철도, 중앙선, 경전선 및 부산신항선 등 4개 노선 약 58만개에 대해 전문가 18명이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,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외부 및 공단과 철도공사의 관련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텐션클램프 균열 및 파손여부에 대해 토크렌치 등의 점검 장비를 이용해 정밀점검과 해체점검을 병행 시행했다.

그 결과 균열이나 파손은 한 개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노선에서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최 본부장은 "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텐션클램프 등 철도에 사용되는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

# 사보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 개시

- 사보 '철길로 미래로' 무료 앱 제공 -

홍보실(실장 이종도)은 지난 5월 20일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시하고, 사용자의 기기에 따라 '구글Play 스토어' 혹은 '애플 앱스토어'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했다.

홍보실은 그간 두 달에 한 번 사보 '철길로 미래로'를 발간하여 매호 6000부(연간 3만6000부)를 전국의 독자에게 배포해왔다.

이번에 스마트 기기용 앱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보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독자가 직접 사보의 제작과 편집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.

신성열 홍보전략부장은 "스마트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철로 변의 행복주택사업, 각 지역별 철도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"면서 "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청소년층에게도 국가정책을 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

# 충청본부 청년인턴, 호남고속철 건설현장 견학

충청본부(본부장 김영하)에 따르면 지난 15일, 2013년 청년인턴사원 12명(충청본부 10명, 시설사업본부 2명)이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을 견학했다.

청년인턴 일행은 호남고속철도 제1-1공구 상황실에서 사업추진현황 설명을 듣고 오송고가, 학천터널, 제2-1공구 공주정거장, 제2-3공구 PSM 제작장 및 정지고가를 견학하며 토목·궤도·전차선·건축 등 철도건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특히 경부고속철도 선로 위로 건설된 오송고가 및 천안~논산 고속도로 위의 정지고가 현장에서는 기존 선로 및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밀하고 정확하게 공사를 완공한 공단의 노력에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.

청년인턴들은 이번 현장 견학에서의 경험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인 및 공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.

(충청본부 조성희 기자)



# 본사 사옥 회의실 '인기 높아'

- 지난해 8000여 명 이용, 이용 고객 증가 추세 -

경영지원안전실(실장 이계환)은 본사 사옥의 교육장,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.

본사 편의시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고객 수가 1675명에서 38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.

편의시설 이용객 대부분은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고 있으며, 열차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는 의견을 전했다.

신철수 경영지원처장은 "냉·온수기 추가 설치, 컴퓨터 속도 향상 등 편의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"며 "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# 충청본부, 자매결연 농촌마을 봉사활동

충청본부(본부장 김영하) KR봉사단 20여 명은 5월 9일 자매결연을 맺은 세종시 연동면 명학마을을 찾아 비닐하우스 철제 철거, 복숭아와 배꽃 수확작업 및 주변 잡초제거, 터파기 작업, 마을 주변 환경정화작업 등 농촌 봉사활동을 시행했다.

이 날 봉사활동을 펼친 충청본부 직원들은 "농민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"며 "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1사1촌 농촌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이중욱 명학마을 이장은 "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농촌생활에 보람을 느낀다"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# 전국 철도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

- 264개 건설현장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-

경영안전지원실(실장 이계환)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건설현장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17일간, 전국 264개소의 철도건설현장에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.

이번 점검은 국토부, 시공사, 감리단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약 403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되며,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, 지하굴착공사, 하천횡단구간 및 가설도로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도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재난의 사전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.

특히,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토사유실이나 지반약화로 인근시설 및 매설물 파손위험이 높은 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장봉희 품질안전평가처장은 "철도 건설현장은 원격영상시스템을 통해 상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"며 "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시공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게시판

# 주요뉴스 ('13.5.17~'13.5.24)

- 춘천~속초·여주~원주직역 민자 추진 급부상 (강원일보2)
- 세종 철강 2조 확대-세입 2조 감축 정부, 134조 복지공약 가계부 확정 (동아일보10)
- 차 공약가계부 'SOC 딜레마' (국민일보8)
-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선심성 SOC 예산 줄여야 (국민일보27)
- 나라 다스릴 땐 작은 생선 조리하듯 정성 쏟아야 (중앙일보31)
- 서대문엔 대학생 타운, 안산엔 외국인 센터 짓는다 (조선일보B01)
- 백운역 철도 위 공원조성 - 7월 착공 (인천일보2)
- 코레일사장, 국토부 압력에 사표 KTX 경쟁체제 도입 위한 수순? (서울신문05)
- 건설업계 구조조정 도미노 이어지나 (서울신문18)
- 행복주택 사업 및 올렸다 (파이낸셜02, 매일경제25, 서울신문27, 국민일보19)
- "소년소녀가장 돌기로 이웃사랑 실천" (광남일보18)
- 철도역 대중교통 환승 편해진다 (세계일보17)
- 공기업 알고보니 남는 장사 했다 (서울경제01)
- 공무원 근로시간 줄여... '유령형 일자리 나누기' 추진 (조선일보01)
- 건설공사 분리발주, 교각살우 아닌가 (서울경제39)
- 행복주택, 보금자리 같은 시행착오 없으려면 (매일경제35)
- 국민 농락한 공기업, 원가 사기 책임져야 (서울경제39)
- 창조경제의 타산지적 (중앙일보29)
- 호남고속철 난공구 구간 '갈산터널' 상반 관통 (충청투데이09, 중도일보06)
- 철도사랑 캠프 운영 (강원일보15)
- '대선공약' GTX 속도 내는데 일반철도 사업은 제자리 (경기일보02)
- 남녀노소 구분없이 레일바이크 즐겨요 (강원일보18)
- "월미은하리엔 전면보수 안하면 운행불가" (동아일보17B)
- 박원순 "용산개발, 사실상 정리만 남았다" (서울신문15)
- '靑 위기관리 능력' 검증이 시작했다 (서울신문05)
- 빛 많은 지지체 경기·서울·부산·인천順 (서울신문12)
- 국제청 "역외자로 분석된 세무조사" (동아일보02)
- SOC 예산은 역시 쌓짓만 (중앙일보34)
- 국토부, 결국 코레일 독점체제 유지 (조선일보12)
- 서울 수서驛 KTX 민영화 안한다 (동아일보06)
- 광화문~강남·여의도 급행 건설철도 추진 (한국경제29)
- 정부부처·공공기관, 시간제 근로자 5만명 채용 추진 (조선일보02)

